

매화 옛 등결에~ 매화 / 녹양이 천만사인들~ 이원의 사랑 사랑 고고히 맺힌 사랑~ 작자 미상

가 매화 옛 걸에 봄철이 돌아오니

매화가 자라났던 해묵은 등결에 새봄을 맞이하게 되니
중의법 ① 실제 꽃 순환적 자연의 순리를 언급하면서 과거에 함께 했던 연인을
② 화자 자신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을 암시하고 있다.

대응·대조
관계

예 피던 가지에 핏죽도 하다마는

그 전에 피던 가지에서 다시금 꽃이 필 만도 하지마는
꽃이 피는 것은 화자의 지난 시절에 함께 했던 정든 임이 올 수 있을 것도 같다는 의미
사랑이 맺어진다는 것

춘설(春雪)이 난분분(亂紛紛)하니 필동 말동 하여라

봄눈이 하도 어지러이 흩날리니 피게 될지 어떨지 모르겠구나.
중의법 ① 실제 눈 다른 여인의 외모가 아름다운 (1) 자신의 연인이 다른 여자와 함께 하며 늙은 나에게 오지 않을 것 같기도 하다ㅠㅠ
② 다른 여자 것은 눈처럼 매서운 현실이다. (2) 인생이 무상하여 나의 청춘은 다시 되돌아 오지 않을 것 같기도 하다 ㅠㅠ

-매화

나 녹양(綠楊)이 천만사(千萬絲)인들가는 춘풍 잡아매며

버드나무가 천만가지여도 봄바람을 잡을 수 없고
과장법을 사용하여 생명력이 넘치는 자연의 섭리
시각적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

탐화봉접인들 자는 꽃을 어이하리

꽃을 찾아다니는 벌과 나비도 지는 꽃을 어떻게 하겠니?
자연의 섭리 설의법 (어찌할 수 없다)

아무리 사랑이 중한들 가는 임을 잡으랴

아무리 사랑이 소중하여도 떠나가는 남을 막을 수 있겠니?
내 사랑 설의법 (어찌할 수 없다)

자연의 섭리를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듯이, 나를 떠나려는 임의 마음을 붙잡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체념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자연의 섭리와 인간사의 순리를 대응시키고 있다.

-이원의

다 사랑 사랑 고고히 맺힌 사랑 온 바다를 두루 덮는 그물같이 맺힌 사랑

그물코마다 맺힌, 온 바다를 덮는 사랑
반복과 점층적 효과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이 크고 깊은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직유법

왕십리 답십리라 참외 넝쿨 수박 넝쿨 얹어지고 틀어져서 골골이 뻗어 가는 사랑

한양 십리 밖에 있는 포이고 얹혀 있는 식물 종류
지역 이름 열거 이름 열거

화자의 사랑은 추상, 관념적인 것인데, 그것을 구체적, 형상적으로 표현하였다.

아마도 이 임의 사랑은 끝 간 데를 몰라 하노라

임의 사랑은 끝이 없구나

비유와 열거를 통해 드러내고자 했던 임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작자 미상

➤ 제재 개관 - (가) 매화 옛 등결에~

이 작품은 유명했던 기녀인 매화가 지은 것으로 전한다. 봄이 되어도 꽃을 피우지 못하는 매화나무에 대한 안타까움의 정서를 표현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자신이 모셨던 평안 감사가 나중에 춘설(春雪)이라는 이름의 젊은 기생을 가까이 하자 이를 원망하며 지었다는 유래를 참조해 보면, 이 작품은 나이가 들어 다른 사람의 총애를 받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으로도 볼 수 있다.

주제	봄이 와도 꽃을 피우지 못하는 매화나무에 대한 안타까움
구성	• 초장 : 매화 옛 등걸에 봄이 돌아옴. • 중장 : 꽃이 피기를 기대함. • 종장 : 춘설로 인해 꽃을 피우지 못함.

➤ [제재 개관]

※ 다음 질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1 사랑에 대해 솔직하고 진솔한 표현을 드러낸 [①평시조 / ②사설시조]이다.
- 2 자신의 감정에 대한 표현을 드러냈기 때문에 [①감상적 / ②현학적]이며 쓸쓸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③성찰적 / ④애상적]이다.
- 3 정형적 율격을 사용하고 있는 시조이므로 [①내재율 / ②외재율]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 4 종장의 첫음보는 반드시 [①3음절 / ②4음절]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 [핵심 내용]

- 5 시적 화자는 이별로 인해 상심한 마음을 자연으로 위로받고 있다. [O / X]
- 6 지난 시절 함께 했던 님이 반드시 돌아오리라는 확신을 내포하고 있다. [O / X]
- 7 당시 간신배가 횡행하던 정치 현실을 풍자하며 지조와 절개를 가진 충신으로서의 덕을 강조하고 있다. [O / X]
- 8 인생에 대한 고찰과 함께 사랑에 얽힌 사연을 담고 있는 글이다. [O / X]

➤ [표현상의 특징]

- 9 자연사와 인간사를 대비하여 화자의 심경을 부각하고 있다. [O / X]
- 10 '춘설'은 지난 시절 함께 했던 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사랑의 경쟁자를 상징하기도 한다. [O / X]
- 11 중의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자연물과 인간사를 절묘하게 대응시키고 있다. [O / X]
- 12 영탄적 어투를 사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O / X]

➤ 제재 개관 - (나) 녹양이 천만사인들~(이원익)

조선 선조 때의 문신 이원익이 지은 작품이다. 버드나무 가지가 아무리 많아도 가는 춘풍을 잡아 둘 수 없고, 벌과 나비가 아무리 꽃을 탐내도 지는 꽃을 막을 수 없다는 이치를 바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도 어찌할 수 없다는 체념의 태도를 보여 준다. 여기에서 ‘임’은 사랑하는 연인일 수도 있고 임금일 수도 있다.

주제	사랑하는 이와의 피할 수 없는 이별
구성	- 초장 : 버드나무 가지가 많아도 춘풍을 잡지 못함. - 중장 : 벌과 나비가 꽃이 지는 일을 막지 못함. - 종장 : 사랑이 중해도 가는 임을 잡지 못함.

➤ [제재 개관]

※ 다음 질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13 하나의 시조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는 시를 [①단시조 / ②연시조]라고 한다.
- 14 3장 6구 45자 내외의 형식미를 갖춘 시를 [①평시조/ ②사설시조]라고 한다.
- 15 사랑하는 이와의 피할 수 없는 이별을 자연과 인간사를 대비하여 통찰하고 있는 시이다. [O / X]
- 16 개인사로 해석하면 정치적인 목적 의식 하에 임금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쓰였다고 볼 수 있다. [O / X]

➤ [핵심 내용]

- 17 만남과 헤어짐의 과정을 통해 삶의 순리를 드러내고 있다. [O / X]
- 18 진취적인 자세로 시대 문제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O / X]
- 19 자연물을 인간의 삶의 영역으로 비유하여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O / X]
- 20 자연의 이치를 통해 문신으로서 자신의 단호한 각오를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O / X]

➤ [표현상의 특징]

- 21 과장법과 설의적 표현으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O / X]
- 22 ‘~ㄴ들’이라는 가정적 표현을 통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 / X]
- 23 대구적 표현을 통해서 시적 상황을 리듬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 [O / X]

24 유추적 서술 방식을 차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O / X]

➤ 제재 개관 - (가) 매화 옛 등결에~

작자 미상의 사설시조로서 임의 지극한 사랑을 예찬한 작품이다. 임의 사랑을 여러 가지 사물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가시적인 형상으로 보여 주면서 그 사랑의 지극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이 수록된 20여 개 가집 중 유일하게 한 군데에 서만 박문욱이라는 작자명을 밝히고 있는데, 이 교재에서는 작자 미상으로 표시하였다.

주제	임의 지극한 사랑에 대한 예찬
구성	• 초장 : 매우 매우 넓은 임의 사랑 • 중장 : 매우 매우 길고 친밀한 임의 사랑 • 종장 : 지극한 임의 사랑

➤ [제재 개관]

※ 다음 질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25 조선 후기 작가의 솔직한 정서를 수다스럽게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로 쓰인 [①평시조/ ②사설시조]이다.
- 26 평시조에서 [①초장/ ②중장 / ③종장]이 길어진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 27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대한 표현을 드러낸 [①연정가 / ②절의가]이다.
- 28 개인사로 해석하면 임의 변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은 변하지 않으리라는 지고지순한 마음을 드러내기 위한 시이다. [O / X]

➤ [핵심 내용]

- 29 사별한 임에 대한 슬픔을 반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시이다. [O / X]
- 30 임의 끝없는 사랑을 예찬적 정서로 직접 드러내고 있는 글이다. [O / X]
- 31 자신의 사랑을 여러 자연물로 빗대어 표현하면서 생동감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O / X]
- 32 자연의 이치를 통해 임과의 재회를 반드시 이루려는 끝없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O / X]
- 33 바다와 땅을 아우르는 모든 곳에 임의 사랑이 존재한다는 종교적인 깨우침을 드러내고 있다. [O / X]

➤ [표현상의 특징]

- 34 추상 관념적 대상을 구체화하는 표현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O / X]
- 35 반복과 점층적 강조의 표현 기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심리를 부각하고 있다. [O / X]

36 지명 이름에 중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참신한 표현 기법적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O / X]

➤ [객관식] 문제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매화 옛 곁에 봄철이 돌아오니

에 피던 가지에 핏죽도 하다마는

춘설(春雪)이 난분분(亂紛紛)하니 필동 말동 하여라

-매화

(나) 녹양(綠楊)이 천만사(千萬絲)인들 가는 춘풍 잡아매며

탐화봉접¹⁾인들 지는 꽃을 어이하리

아무리 사랑이 중한들 가는 입을 잡으랴

-이원의

[어휘풀이] 1) 탐화봉접(探花蜂蝶): 꽃을 찾아다니는 벌과 나비

(다) 사랑 사랑 고고히 맺힌 사랑 온 바다를 두루 덮는 그물같이 맺힌 사랑

왕십리 답십리라 참외 넝쿨 수박 넝쿨 엮어지고 틀어져서 골골이 뻗어 가는 사랑

아마도 이 임의 사랑은 끝 간 데를 몰라 하노라

-작자 미상

※ (가)~(다)의 표현상 특징에 대해 답하시오.

37 (가)는 영탄적 어미로 문장을 종결하여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O / X]

38 (나)는 초장과 중장이 점층적 대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 / X]

39 (다)는 비가시적이고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형체처럼 형상화하고 있다. [O / X]

40 (다)는 동일한 시어를 수식하는 다양한 구절을 반복하여 이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O / X]

41 <보기>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고르시오.

< 보기 >

(가)와 (나)는 모두 자연물을 소재로 내세우고 있지만 자연물과 화자의 관계는 달리 나타난다. (가)에서 매화나무는 화자가 응시하는 대상으로서, 매화나무의 현재 상태를 묘사하면서 꽃을 피우지 못하는 데 대한 [㉠안타까움 / ㉡원망]이라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나)에서 자연물은 인간의 삶을 비추는 자연 현상으로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 ㉣이별](을)를 막을 수 없다는 이치를 유추함으로써 인생의 한 국면에 대한 태도를 결정한다.

42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

< 보기 >

시간은 하루, 한 달, 일 년 등을 단위로 반복적으로 순환하는 한편, '과거-현재-미래'는 순차적, 연속적으로 이어지며 한번 흘러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는 불가역성을 지닌다. 시간 의식은 이와 같은 시간에 대하여 인간이 의식하는 방식 및 그에 대한 태도를 가리킨다. 서정시에서는 시간을 알려 주는 어휘나 문법적 표지인 시제를 단서로 하여 시간 의식에 접근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시간과 무관하게 항상적이고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현재화하여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경우의 현재는 과거 혹은 미래와 대비되는 현재와는 다른 의미가 된다.

- ① (가)에서 화자는 꽃이 피었던 과거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꽃이 피지 않은 현재와 대비하여 미래에는 반드시 꽃이 피리라는 확신의 태도를 대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② (나)에서 화자는 '지는 꽃을 어이하리'와 '가는 임을 잡으랴'와 같은 설의적 어조를 바탕으로 현재 상황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을 부각하고 있군.
- ③ (다)에서 '맺힌', '뻗어 가는' 등의 현재형 시제는 '이 임의 사랑'에 대한 과장된 묘사와 어울려 화자가 현재 상황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을 부각하고 있군.
- ④ (가)에서 '돌아오니'의 현재형 시제는 '예 피던'과 대비되어 현재 상황을 표현하는 반면, (나)에서 '가는 촌풍'과 '지는 꽃'의 현재형 시제는 한시적 의미를 지니며 현재의 단절이 미래에는 이어지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보여 준다.
- ⑤ (나)에서는 현재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미래에 대한 긍정적 태도로 전환되고 (다)에서는 현재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미래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연속된다고 볼 수 있겠군.

[정답 및 해설]

- 1) **정답** ① **해설** 사랑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담고 있어서 사실시조 같다는 느낌이 들지만 실은 평시조이다.
- 2) **정답** ① ④ **해설** 현학적이란 지식을 드러내며 과시하는 태도를 말한다.
- 3) **정답** ② **해설** 평시조는 모두 외재율이다.
- 4) **정답** ① **해설** 종장의 첫음보는 반드시 3음절이다.
- 5) **정답** X **해설** 시적 화자는 자연물로부터 위로받지 않는다.
- 6) **정답** X **해설** 시적화자는 확신을 가지지 않고 다시 님과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걱정스러워하고 있다.
- 7) **정답** X **해설** 이 시는 기생의 신분으로 쓴 시이기 때문에 충신의 덕을 드러내는 것은 옳지 않는 정서이다.
- 8) **정답** O **해설** 작가는 이별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지만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허무하고 무상한 것이라는 정서를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 9) **정답** O **해설** 자연은 돌아올 수 있지만 내 님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10) **정답** X **해설** 춘설의 의미는 눈이자 경쟁자이지 님을 상징하지는 않는다.
- 11) **정답** O **해설** 중의적 의미 중 하나는 자연사, 하나는 인간사를 의미하여 절묘하게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12) **정답** X **해설** 영탄적 어투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화자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 13) **정답** ① **해설** 단 하나의 시로 끝나는 것을 단시조라고 한다.
- 14) **정답** ①
- 15) **정답** X **해설** 자연과 인간사를 대비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인간의 삶 역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를 수 없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16) **정답** X **해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쓴 시는 아니다.
- 17) **정답** O **해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자연사에 빗대어 얘기하고 있다.

- 18) **정답** X **해설** 화자는 진취적이거나 적극적인 자세로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진 것이 아니다.
- 19) **정답** O **해설** 자연의 순리를 근거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20) **정답** X **해설** 단단한 각오를 드러내는 시가 아니다.
- 21) **정답** O **해설** 버드나무 가지가 천 개 있다는 과장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22) **정답** O
- 23) **정답** O **해설** 초장과 중장을 대응하고 있다.
- 24) **정답** O **해설** 자연과 인간사를 비유하고 있다.
- 25) **정답** ②
- 26) **정답** ① ② **해설** 평시조는 초장 중장의 길이가 길어진 시다.
- 27) **정답** ①
- 28) **정답** X **해설** 임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임의 지극한 사랑을 예찬하는 글이다.
- 29) **정답** X **해설** 사별시가 아니다.
- 30) **정답** O
- 31) **정답** O **해설** 넋쿨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 32) **정답** X **해설**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 33) **정답** X **해설** 임에 대한 사랑은 맞지만 종교적인 깨우침은 아니다.
- 34) **정답** O
- 35) **정답** O **해설** 반복을 기반으로 문장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점층적 표현 기법을 살리고 있다.
- 36) **정답** X **해설** 중의적 표현 기법은 사용하지 않았다.
- 37) **정답** O
- 38) **정답** X **해설** 초장과 중장이 대구를 이루고 있지만 점층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39) 정답 ○ 해설 (다)의 초장에서는 '그물'에, 중장에서는 '참외 넝쿨', '수박 넝쿨'에 빗댄 표현을 통해 임의 사랑이라는 비가시적이고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인 형상으로 보여 주고 있다.

40) 정답 ○

41) 정답 ① ④

42) 정답 ③ 해설 (나)에서는 임이 떠나가는 상황이므로 현재는 부정적이라 할 수 있다. ① 반드시 재회하리라는 확신은 없다. ② 현재 만족감을 드러낸 것도 아니다. ④ (나)에서 현재에는 이별하지만 미래에 다시 꼭 만날 것이라는 믿음은 드러나지 않는다. ⑤ (다)에서 현재의 긍정적 태도가 미래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연속되는 것은 맞지만 (나)에서 현재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미래에 대한 긍정적 태도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대치동 날개